



세상에 에코힐링을 전파하는

선양 ‘맑은사회봉사단’

2005년 사회적 나눔을 위한 선양 “맑은사회봉사단” 출범

2005년 10월 선양은 사회적 기대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선양 “맑은사회봉사단”을 창단하였다. 임직원 전원이 봉사단원으로 출발한 선양 “맑은사회봉사단”은 첫째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맑은 사랑’ 이어 달리기를 시행했다. 또한 기부자가 내는 만큼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서 기부하는 1+1 Mathching Grant형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환경보호 및 나눔 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양 “맑은 마을” 캠페인을 전개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모든 임직원이 지역별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마을 청소 캠페인’, 연말연시 독거노인을 위한 ‘쌀 나눠주기’, 푸른 환경 가꾸기 일환으로 ‘나

무심기’ 행사도 전개해왔다. 첫 걸음부터 욕심부리지 않고 주변부터 하나씩 하나씩 챙기는 활동을 했다.

출범이래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선양 “맑은사회봉사단”은 출범 이래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 문화사업 : 지역 문화·예술 축제 참가, 도서기증행사
- 장학사업 : 지역 장학생 후원 및 급식비 지원
- 복지사업 : 재가 장애인, 불우이웃 돕기행사, 간식배달, 무료급식, 김장 담그기, 연탄 나누기, 쌀 나누기 행사 등
- 농촌복지사업 : 농촌사랑 1社1村운동 전개

○기타사업 : 대학교 봉사 동아리 지원, 해맞이 행사, 각종 사회복지단체 요청건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선양은 2010년에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에서 '자원봉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매년 기본 봉사운영안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펼치지만, 지역 곳곳에서는 작은 도움이라도 왕왕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임직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봉사단인 만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직원들이 나누는 사랑, 함께하는 기쁨'에 취해 봉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뜻 깊은 봉사활동에 봉사마일리지는 "담"

선양은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에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제공해준다. 여기에 '담'으로 직원들에게 봉사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봉사마일리지 적용 기준표에 의거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이렇게 개인별 적립된 마일리지는 자기계발, 수양,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원해준다. 봉사활동을 통한 '보람'과 마일리지를 통한 '만족'으로 직원들에게 2배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에코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업그레이드된 봉사활동 프로그램

선양은 '자연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에코힐링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맑은사회봉사단의 활동에도 그러한 에코힐링 정신을 접목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 예로 선양은 매년 5월 대전 대덕구 장동에 있는 계족산 숲속 황톳길을 맨발로 걷고 달리는 맨발축제와 매월 시민들을 위한 숲속맨발걷기&음악회가 맑은사회봉사단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 숲속 음악회
2 마을 청소 캠페인
3 맑은 친구 캠페인
4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보다 많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맑은사회봉사단 단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선양 "맑은사회봉사단"은 직접 찾아가서 보듬어 드리는 봉사활동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연이 선물한 값진 보물을 만끽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자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고 있다.

선양은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나아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달 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에코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선양 "맑은사회봉사단"은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의 실행주체이고, 내부와 외부에 잇는 가교역할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다.